

전력공사-중소기업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한국전력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에 처음 구성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체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한국전력의 중

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핵심인력 장기재직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간담에서는 △개폐기 PT(변압기)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증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핵심 화두였다. 중소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전기료 인상 부담이

크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기본요금 최대수요전력 기준 연간→분기별·월별 산정 △실제 전력수요에 맞춰 계절별(6월·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조정 등이 있었다.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에서는 요청사항이 전체 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전력과 중소기업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

야 할 운명 공동체로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및 효율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 조성처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즉시 이행가능한 부분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한국전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는 23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사 속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기계은행사업 강화 통한 영농’

2025년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회장 이석훈, 계화농협조합장)는 23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사 속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 △신규회원 가입(백구농협 김재원협) △입원 선출 등을 의결하고, 직영사업 중심의 농작업면적 확대, 발농업 기계화를 제고 등을 통한 영농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와 추진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회장 이석훈 조합장(계화농협), 부회장 박점용 조합장(장계농협), 감사 최우식 조합장(남부안농협)이 2025년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에 연임되었다. 이석훈 협의회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부녀화로 더욱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어 농기계 은행사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더 크다”며 “맞춤형 직영사업과 발농업 농작업대행 확대 등을 통한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인 실익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농기계 은행사업 지역 농협 및 농작업대행 면적 확대에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영농환경 개선에 농기계은행 선도협의회 농협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초청 영화관람’ 행사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해 영화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생활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회원기업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비쁜 일상에 소소한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람한 영화는 ‘어둠’으로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기업 관계자는 “문화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회원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전주상의가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하며, 이번 행사가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고려해 회원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세계 실험동물의 날, 과학 발전에 일조 ‘실험동물’ 냇 기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돈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

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 농약 등록평가 과정에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와 안점막 자극성, 피부감작성,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내분비독성, 유전독성 등을 동물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용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에

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때도 동물실험을 거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냇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16년 이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동물실험 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에 ‘JB희망의 공부방 제197호·제198호’ 오픈

아동들이 학습·문화적 경험 통해 미래인재 성장 돕는 상관·완주 지역아동센터 어려움 해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4일 완주군 상관지역아동센터와 완주농자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7호, 제19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상관지역아동센터는 독서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독서 공부방을 조성했다. 도배, 장판을 새롭게 하고 책상 의자, 블라인드 등도 지원해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공립으로 운영하는 완주농자지역아동센터는 반복적 사용으로 수리조차 불가능한 출입문을 교체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센터이용을 도왔다. 도배와 좌탁, 블라인드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벽면에 편백나무



판재를 새롭게 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픈식에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 상관지역아동센터 최영순 센터장, 완주농자지역아동센터 이지원 센터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김영필 완주군 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오현권 부행장은 “아동들이 학습 및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헬스기업 발굴·육성지원’

바이오진흥원,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지원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바이오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2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수혜기업들은 전년 대비 매출 38% 증가, 신규거래선 45건 확대, 수출 약 10억원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도내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 촉진 및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품제작, △국내외 인증 컨설팅, △기업성장패키지 지원(특히, 기술경영컨설팅, 맞춤형교육, 홍보지원), △통합마케팅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분사, 공장, 연구소 중 한 개 이상을 보유한 바이



오헬스분야 관련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총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f.re.kr>) 알림마당(일반공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의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하고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로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내 바이오헬스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